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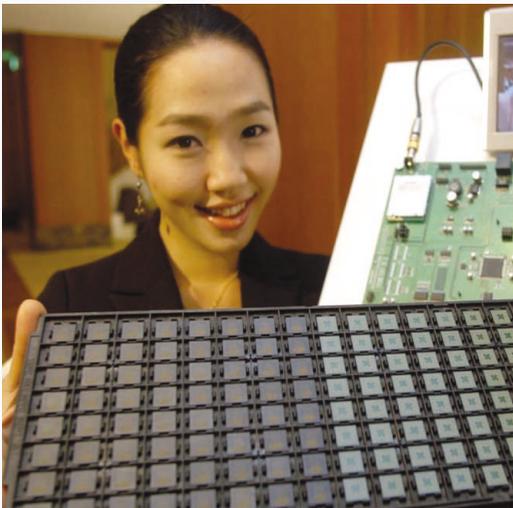


DMB전용 멀티미디어칩 "넵튠"

1. 씨앤에스의 DMB 비디오 디코더칩 "넵튠"을 소개해주세요.

'넵튠'은 DMB 단말기에서 고품질, 고음질의 대용량 멀티미디어를 실시간으로 처리해주는 DMB전용 멀티미디어 칩으로, 씨앤에스테크놀로지가 금년 2월 세계최초로 하드웨어적으로 구현하여 상용화에 성공한 제품입니다.

이 칩은 기존 소프트웨어적 처리 기술방식에 비해 전력소모를 획기적으로 줄여, DMB 단말기의 최대약점으로 지적되던 배터리 소모 문제를 해결, DMB수신기 개발을 앞당기는 핵심기술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DMB 전용 멀티미디어 칩 '넵튠'

2. 씨앤에스의 "넵튠"은 경쟁사에 비해 어떠한 기술적 우위나 장점이 있습니까?

'넵튠'은 그 동안 휴대폰에 DMB를 탑재하는 응용칩에 대한 기술 개발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돼 왔지만, 차량을 비롯하여 핸드폰, PMP 및 PDA에까지 적용될 수 있는 DMB 전용 멀티미디어칩이 출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기존 방식의 경우 멀티미디어 처리를 소프트웨어상에서만 구현하고 있는데 비해 이번 '넵튠' 칩의 경우, 관련 기능을 하드웨어적으로 개발하여 칩의 동작주파수가 낮아 발열률과 전력소모가 낮아 시스템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울러 고성능의 CPU를 내장하고 있어 향후 교통정보시스템, 데이터 서비스 등 부가적인 다양한 DMB용 미들웨어를 쉽게 구현할



씨앤에스테크놀로지



경영기획팀 홍현주 대리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위성 및 지상파 DMB 방송을 비롯해 모든 종류의 DMB 단말기에 탑재 가능 합니다

또한 씨앤에스는 아이앤씨테크놀로지·아트멜·텔레칩스·파나소닉·프론티어실리콘·피엔피네트웍스 등 다양한 베이스밴드를 지원하고 DAB 모듈 전문기업들과도 협력관계를 공고히 구축하고 있어 단말기 제조사가 원하는 베이스밴드 및 DAB 모듈과 결합된 제품을 공급 받기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3. 씨앤에스가 집중하고 있는 DMB관련 비디오 디코더 칩 분야는 향후 어떤 기술적 발전을 하리라고 예상하십니까?

'넵튠' 이후에 차기 DMB폰 전용 칩으로 개발하는 '트라이톤'은 기존 VOD기능은 물론, MPEG4 기반 하드디스크형태의 저장장치를 갖춘 PMP기능을 구현하며, 이와 함께 동영상 촬영하고 압축, 복원하는 기능도 갖춘 멀티미디어 전용 칩으로, 특히 유럽형 DVB-H 폰 에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트라이톤'은 지상파 DMB를 운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을 모두 구현, 별도의 오디오 등 방송 프로토콜을 추가하지 않아도 되며, 시스템 측면에서는 멀티미디어 칩 구매비용 이외 별도의 추가 비용이 들지 않아, 단말기 업체의 구매비용 절감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트라이톤'은 DMB폰 전용으로 개발된 모델로, 향후 PMP, PDA, DMB복합기, Wibro단말기 등 동영상구현 멀티미디어기능을 갖춘 정보기기에는 범용적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최적화 하였습니다.

4. 향후 DMB 관련 비디오 디코더칩의 시장 전망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데이터퀘스트의 자료에 따르면 세계 DMB시장규모는 2005년 204억 달러에서 2006년에는 280억 달러, 2007년에는 340억 달러로 향후 3년간 무려824억 달러(원화기준 84조3,776억 원)에 이를 만큼 폭발적인 성장세를 구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가 올해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국내 DMB단말기 시장은 2005년 1,493억 원 2006년 2,963억 원, 2010년에는 1조3천6백 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LG 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DMB이용자수는 2005년 250만명, 2006년 487만명, 2007년 948만명, 2003년에 2,52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3년 내 DMB폰이 전체 휴대폰의 약 70~80% 수준으로 확대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